

결코 우아하지 않은 '우아한 세계' 라면 씬

눈물 젖은 라면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아빠들... 그들은 '무죄'



윤여수의 라스트 씬

영화 '우아한 세계'

단순히 이야기의 결말만은 아닐 터이다.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는 이들이 스스로 그 결론을 맺어주길 바라는 '열린 결말'로서 갈무리하기도 한다. 한 편의 영화가 관객에게 안겨주는 진한 여운이 발원하는 또 하나의 지점. 마지막 장면, 바로 '라스트 씬'(Last Scene)이다. 그래서 '라스트 씬'은 어쩌면 한 편의 영화가 드러내려는 모든 것이 담긴, 단 하나의 장면일지 모르나, 때로는 '에필로그'로서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도 많아서 '라스트 씬'의 여운은 더욱 깊고 커지기도 한다. 표기법상 맞는 표현인 '라스트 씬'이 아닌 '라스트 씬'이라 쓰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헛헛한 뱃속을 채우려 끓인 라면 한그릇 참을 수 없는 목뎀의 쓸쓸함에 눈물만... 세상이 강요하는 집은 무겁기만 하구나



? 영화 '우아한 세계' 이제는 힘 잃어 후배들에게 치이고 조지 으로부터 배신당하지만, 그래도 중년의 가정은 먹고 살아가야 한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없다면 그나마 좀 나아질까. '생계형 조폭'이라는 말이 가담키나 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40대 가장이면서 조폭 중간보스인 강인구의 일상은 비루하기만 하다. 넓은 거실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다 유학을 떠난 아이들과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헛헛함으로 이내 라면을 내팽개쳤으면서도 이를 궁상맞게 치우는 마지막 장면에서 송강호의 연기가 더욱 빛난다. 한재림 감독의 2007년작.

◀ 헛헛함과 쓸쓸함 속에서 '나이트 남자'가 먹는 한그릇의 라면은 결코 '우아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라면발을 삼켜내야 한다. 영화 '우아한 세계'의 마지막 장면은 그 기록함을 말해준다. 스포츠동아DB

중량 100g이 조금 넘도록 단단히 뭉쳐진 고체 덩어리를 펼칠 땀은 물로 풀어내면 고슬고슬하게 익은 면발이 된다. 여기에 흩뿌려 넣은 파가루 가득한 스프가 녹아내리면 맛깔스럽게 익은 간편식의 대명사로서 라면은 제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한다.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양념냄비 속 라면이라면 더욱 좋다.

면발은 왜 그리도 쫄깃하며 스프의 맛은 또 왜 그토록 유혹적인가. 오죽했으면 작가 이문열도 라면이 한국에 정착한 1960년대 초의 그 맛을 기억하고 있을까. 소설 '변경'에서 그는 "노랑고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면발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깨어놓은 생계란이 또 예사 아닌 영양과 풍위를 보충하였다. (중략) 그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면이 늘 그렇게 '귀하고 맛난 음식'으로서 '영양과 풍위를 보충'하는 건 아난가보다. 작가 김훈은 "라면을 먹으면서, 낯선 시간들이 삶 속으로 스며들고 절여져서 새로운 늙음으로 늙어지기를 기원"하며 "늙음이 이 부박함 속에서의 늙음이 아니기를, 저 부박함이 마침내 세로움이 아니기를" 바랐다. (2002년 산문집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 중 '후루룩 목이

멘다' 라면) 그렇다. 살다보면 안다. 나이 50대 중반에 들어선 때 김훈처럼 라면을 먹으며 목이 메는 순간이 언젠가는 기어오 찾아온다는 것을.

시인 정호승과 황지우가 라면과 눈물을 이야기한 바도 그렇다. 정호승은 '슬픈 인생의 어느 한때 / 라면을 혼자 끓여 먹고 / 울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다면서 그 자신, '가끔 뚱뚱에서도 / 라면을 혼자 끓여 먹으며 울지'라고 고백하며 (시 '라면 한 그릇'), 인생을 위해 거룩한 라면 한 그릇을 또 끓여낸다. 그 거룩함을 황지우는 한 사내와 노인에게서 목격했다. 그는 '나이트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 울적,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올리고 있는 그에게 /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물지며 손갈 싸움하던 /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시인은 그 덩치 큰 남자처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짙은 입'을 바라보면서 '눈물겨운' '거룩한 식사'의 뜨거움을 삼켰다.

이처럼 삼켜내려는 뜨거움 속에서도 기어오 참을 수 없는 목뎀의 쓸쓸함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으니, 곧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만다. 입과

식도를 통해 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할 면발은 쓸쓸함과 눈물에 막혀 며칠 동안 공공 알아야 하는 체증을 부르곤 하는데, 그때의 후회란 배고픔을 참지 못했을 때보다 더 아프고 아프다.

아내와 아이들을 저 멀리 떠나보낸 '기러기 아빠' 인구(송강호)의 라면은 그래서 마룻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을까. 자신의 곁에서 벗어나서야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에 비취 추레한 러닝셔츠와 허리근 늘어진 사각팬티 차림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 때문이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라면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도 차가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라면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라면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라면은 죄인이 아니다.

그럼 무죄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쓸쓸한 허기를 대중이나마 달래려는 인구의 행위와 인구, 아니 '나이트 남자' 그 자신은 무죄이며 죄인인가.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땅 위의 '나이트 남자'들이야말로 무죄이다. 온갖 비웃음과 배신적 관계 속에서 꾸역꾸역 자신을 버텨내야 하는 그 모든 '나이트 남자'들의 숙명을, 빼만 앙상해진 두 어깨 위에 전형처럼 올려놓은 세상이 무죄이

며 죄인이다. 그럼에도 이 우직한 '나이트 남자'들은 세상을 대신해 끊임없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대야만 한다는 것을 어쩔 도리 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트 남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마음 편히, 아니 그저 쓸쓸하게 비어버린 자신의 헛헛한 뱃속을 채우기 위해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기에도 버거운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운명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라면은 그저 처방하기만 하다.

라면발을 씹어 삼키며 그 직후 위장을 뒹길 먹먹한 체증조차 예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저 그들의 작은 죄란 죄일까.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운명을 탓하기에 '나이트 남자'들에게 세상이 강요하는 바, 너무도 무겁고 엄중하다. 세상 대신 대가를 치러가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죄라고 단정한다면 세상은 너무도 비겁하다.

그러나 정호승은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 빈 호주머니를 털릴 털어 /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 ...' (시 '술 한 잔')며 억울해 했다.

그래도 인생은 그 자체로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정호승도 훗날 그 억

울해 했던 것을 후회하며 수많은 나날 속에서 인생이 자신에게 사준 술을 떠올리지 않았는가. 다만 인생으로부터 얻어 마신 뒤 남은 빈 술잔을 채워야 하는 것도 여전히 '나이트 남자'들의 몫임에 틀림이 없다. 내팽개친 라면발이 마룻바닥을 더럽혀 놓았음을 눈치 채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이내 면발을 주워 담아 길가로 마룻바닥을 닦아낼 수밖에 없는 인구의 궁상맞음도 결국 그 때문이다.

아마도 인구를 비롯한 '나이트 남자'들은 그래서 다시 라면을 끓일 것이다. 라면은 그때 또 다시 거룩해진다. '눈물로 간을 맞춘 라면을 먹어 보지 않는 사람은 /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며 '늘 세상 어딘가엔 눈물로 라면을 삼키는 사람이 있다'(북효근, 시 '라면-라면에 대한 예의')는 말은 틀리지 않는다.

오늘,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야겠다. 눈물은 흘리지 않으리라. '팔팔 끓이지 못한 하루가 / 통통 불어터진 면발 같은 날'이어도, '허겁지겁 먹지 않도록 /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젓가락을 들고' '어깨 나란히 하는'(이경숙, 시 '결상') 사람이라도 있다면 좋으련만... 인생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 헛헛헛!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금강 양말



양말 하나 바꿔 신었을 뿐인데... 다른 양말은 못 신는다

내 발과 하나되는 '편안한 양말'을 신자 조이지 않고, 미끄럼 없고, 폭신해서 좋다

- 일본 토크스 특수 고무사 사용**
발뚱 부분은 일본 Naigai사에서 개발한 '토크스' 특수고무사를 사용하여 조임이 적고 흘러내리지 않는다
- 고신축 면몰리사 사용**
신축성이 좋고 촉감이 매끄러운 '고신축 스펀덱스 면몰리사'로 발등 부분은 3중, 발뚱 부분은 2중으로 편직했다. 따뜻하면서도 한겨울 방한화에 신어도 답답하지 않다.
- 인체공학적 곡선처리**
신발을 신었을 때 양말이 벗겨지는 것은 발뚱곡선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금강양말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곡선처리하여 흘러내리지 않고 오래 신어도 편안하다.
- 편안한 2중 발뚱 - 따뜻한 3중 발뚱**
발뚱과 발뚱 부분은 3중으로 편직하여 보온성을 강화했으며, 발뚱 부분은 2중으로 편직하여 방한화에 신어도 답답하지 않다.
- 바이오 세라믹 도트**
발뚱부분은 바이오세라믹으로 Non-Slip 처리를 하여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 은나노 원사 사용**
은입자를 미세한 나노입자로 만들어 섬유에 결합했다. '은나노 원사'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땀 냄새와 악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

봉제선이 없는 손 봉조로 착용감을 높였다
발뚱 부분은 수직업으로 손 봉조하여 봉제선이 없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뚱 부분이 없어 배기거나 불편하지 않아 착용감이 편안하다

잘 고른 양말이 신사의 체면을 살린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는 느낌이 좋은 '금강양말'

양말은 많이도 신을 양말이 없다. 아침마다 양말 찾느라 전쟁을 벌이시는가? 금강 '늘어나서 혈명해지고 특하면 구멍나고 해지는 양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저 양말, 대중 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라. 양말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다. '금강양말'은 신는 순간 발에 맞춘 듯이 편안하고 쾌적하다. 발뚱을 조이거나 발이 갑갑하지 않고, 바이오 세라믹 도트로 미끄러지지 않아 신발과 하나되는 느낌을 준다. 발가락 부분은 봉제선이 없는 '손봉조'로 착용감이 편안하며, 뒤꿈치 모양에 맞춘 형태로 잘 흘러내리지도 않는다. '흡습속건' 처리로 뽀송뽀송 땀흡수가 잘 되니까 발이 항상 쾌적하다. 땀냄새와 무좀을 방지하는 '소취가공'으로 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 미끄럼을 방지하는 바이오 세라믹 도트
- 통기성이 좋은 고신축 면몰리사 사용
- 은나노 원사 직조해 항균, 항취작용
- 봉제선이 없어 배기거나 불편함이 없다



1세트 (10컬러) 39,000원

제품명 금강양말 (겨울용)
회원특가 1세트(10컬러) ₩59,000 → ₩39,000
2세트(20컬러) ₩73,000
(2세트 주문시 택배비 무료)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신,
카드결제가능 (3~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제품신청 1588-9440